

80년 만에…“여순사건 국가가 반성하겠습니다”

정부, 불법 공권력 첫 인정... 모든 상소 전면 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위해 국가 책임 다투지 않기로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국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의 후속 조치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으며, 1949년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때 희생당한 피해자 수만 1만 1131명에 달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도 지난 2022년 출범한 뒤 3년여 동안 총 1만879건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받아 이 중 3776건(34.7%)을 처리 완료했다. 각각 인용 2596건, 기각 104건, 기타(중복·취하 등) 1076건 등이다.

여순사건위는 실무위에서 1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앙위에서 재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희생자 신고 7103건 중 2671건은 실무위 조사를 마치고 중앙위로 전달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모든 상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린이 산타들 “붕어빵 사세요”

11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따뜻한 마음을 나눠요’ 기부행사에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붕어빵, 군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수익금 81만8000원을 연말 지역 돌봄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북구청에 전달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11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집중적인 임금교섭 끝에 잠정 합의를 도출한 데 따라 오늘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 안전과 관련해 정부 측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날 호남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을 포함한 전국적인 파업 계획은 모두 취소됐으며 철도노조는 일상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올 겨울 첫 한파특보

광주·전남 지역에 올 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후 9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12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영하 4~2도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한파특보는 12일 낮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말에는 다시 북쪽 기압골이 통과하고 상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3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14일에도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찬 공기 강도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행사 보장 필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툴 여

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 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채용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했으며, 지난 10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개최

도, 현장 중심 인권 정책 강화·사각지대 해소 논의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지역별 인권 진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11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인권위원장과 인권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0차 전국 광역지자체 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를 열고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탐방하는 한편, 전국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광역별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협력 과제 등을 논의하고 지역별 인권정책 추진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이 제감할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시 교량 재가설 ‘쪼개기 수의계약’ 위법”

전남도, 순천시 감사

순천시가 도심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전남도 판단이 나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순천 주민들의 교량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순천시가 하나의 공사를 둘로 나눠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순천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1~2022년 순

천시가 교량교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 공사에 사용된 거더(보) 사공법을 신기술 및 특허공법으로 볼 수 있는 지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301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전남도는 청구인 중 182명의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특정공법 선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선정됐지만, 특정공법을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 4월 교량교 재가설 공사 실시절차 과정에서, 저수로 내 교각 설치에 제한됨에 따라 교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더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정(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4월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특정공법 선정에 나서 A업체 보유한 방재 신기술을 선택했다. 순천시는 이후 교량교 재가설 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 공사 부분을 A업체와 45억여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특정공법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일구조물공사를 분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